

# 한국문화교류 소식

16호 2015년 6월 15일 발행 • 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121-81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취임사

## 위대한 민족의 위대한 성취



조남철  
본회 이사장

존경하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시간 ICKC를 위해 헌신하신 박갑수 전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과 감사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새롭게 ICKC 이사장의 중책을 맡게 된 조남철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뜨겁고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월 30일 있었

던 ICKC 총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점에 대해 고마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저는 우리 ICKC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ICKC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박갑수 전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어른들께서 닦아 놓은 길을 더욱 탄탄하게 닦을 것이며, 그 길을 통해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걸어 온 길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한글과 태권도의 보급을 통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뜻 깊은 일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를 뛰어넘는 성과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광복

7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산업화와 정치적인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인 것입니다. 70년 전, 남의 나라의 원조에 나라의 모든 운명을 내맡겼던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은 6.25라는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그를 딛고 일어나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국가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민족의 위대한 성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70년의 여정에 우리는 선조들의 희생과 땀, 열정과 헌신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아 왔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뜨거운 조국애, 월남 참전 용사들의 목숨을 건 헌신, 뜨거운 중동의 사막을 누빈 건설현장 영웅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기 그지없는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열정과 조국애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ICKC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함께 지난 시간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독일 뉘스라켄 시에 아리랑 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파크 추진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박갑수 전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과 감사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은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우리 ICKC도 한 걸음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회원 여러분들과 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 엄중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그 영광스러운 길에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어 기사

## 한국어, 프랑스 중학교서 정규 과목으로 첫 개설

프랑스 파리의 귀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가 한국어를 정규 교과 과정으로 처음 채택, 오는 9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실시한다. 주프랑스한국교육원(원장 이부련)은 “최근 프랑스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된 것은 이런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프랑스 초중고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28개교이며, 총 2,378명이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 한국 교육부는 한국어를 프랑스 국가 교육과정에 편입시키겠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프랑스 내 정규학교의 한국어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출처\_ 재외동포신문 2015. 04. 15.

# 딘스라켄 아리랑

## ‘딘스라켄 아리랑파크’ 건립에 부쳐...

우리는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회한과 걱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허약한 변방의 민족이 이제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따라하는 한류문화를 창조하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지난 70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만들어 온 영광의 역사입니다. 누에꼬치에서 짜낸 비단, 가발, 신발, 봉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 젊은 여성근로자들, 조선, 철강, 전자 등 산업현장의 근로자, 세계 각국을 뛰어다니는 기업인 등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거름이 되었습

니다. 이역만리 독일 땅에서, 전쟁터에서, 열사의 사막에서, 머나먼 원양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열망으로 고난을 헤쳐 온 결과입니다.

물론 아픔과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 아픔은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경제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정치적·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이 국민적 갈등의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경제구조의 변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다지며, 힘을 합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딘스라켄 아리랑파크’ 예정 공원



기념관 예정 건물

이제 우리는 파독 근로자들의 애환이 서린 독일 뉘스라켄 시 로벡 광산의 본부와 철탑이 서 있던 곳에 뉘스라켄 시와 손잡고 세계 최대의 한국 공원인 “아리랑파크”를 조성하려 합니다. 그리고 본부 건물에 제공받아 기념관을 만들어 우리의 산업과 문화의 발전사와 비전을 나타내고, 독일인은 물론, 세계인이 꿈을 함께 나누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파독 근로자들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들의 열정과 헌신을 생각하게 하며, 독일인 및 세계인에게 우리의 경제와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철탑

다. 완성된 후에는 가능하면 우리 정부에 기증하여 잘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명심이나 어떠한 사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사업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한민족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조망하며, 한독문화교류 및 세계인들과 꿈을 나누는 '아리랑파크' 사업에 우리 모두의 힘과 정성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뉘스라켄 시장 인사말

뉘스라켄 시는 앞으로 조성될 아리랑파크로 인해 한국과 독일간에 살아 움직이는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광산 요원들과 간호사들은 그들의 고향, 한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것과 같이 독일 경제성장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뉘스라켄 시 역시 한국의 수많은 젊은 남녀에게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잠정적인 그들의 고향이었고, 결혼 후 여기서 가정을 이룬 소수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나는 뉘스라켄 시 시장으로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아리랑파크컨설팅위원회가 옛 광산 철탑 주변 부지 위에 아리랑파크 설립을 결정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에서 뉘스라켄 시를 찾는 미래 한국의 관광객을 우리 뉘스라켄 시가 두 손 들어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딩어 미카엘 박사  
Dr. Michael Heidinger  
뉘스라켄시장

## 드넓은 만주의 중심에서 한국어 꽃 피우다



한 정 현

요녕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선양주말한글학교 교사

한국과 중국은 우수한 역사적 교류를 맺어온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다.

1992년 8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대중국 교역량은 2013년 말 현재 미국과 일본 상대 교역량을 합한 것의 1.5배를 넘는 명실상부한 제1 무역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2,704,994명(재외국민 369,026명, 시민권자 2,335,968명)의 한민족들이 중국에 거주(2010년 12월 기준)하고 있을 만큼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선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만주로 일컬어지는 동북 3성 - 랴오닝 성, 지린 성, 헤이룽장 성 - 은 고조선과 발해가 융성했던 옛 우리의 땅이기도 하면서, ‘일대일로’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전략 요충지이며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곳이어서 우리 민족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다. 그 가운데서도 심양(瀋陽)은 동북 삼성의 경

계, 교통의 중심지이며 한국과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봉천(奉天)이라고도 불렸으며, 우리에게 ‘누르하치’로 알려져 있는 청나라 태조와 그의 아들 ‘홍타이지’의 묘가 동릉과 북릉에 위치해 있다.

심양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필자가 재직 중인 요녕성(遼寧省) 요녕대학교(遼寧大學校)는 1994년 국제관계대학 산하에 한국어학과를 정식으로 개설해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8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심양사범대학교, 동북대학교는 한국어를 교양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한국어를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왜 한국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학생들의 다양한 동기를 들어보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로서는 다시 한 번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 좋아하는 한국 스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연히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서 등 그 동기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실제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갖게 되는 이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인 교사들은 한국어의 이론뿐만 다양한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많이

한다. 윗놀이, 한복 입어보기, 한국음식 만들기(김치, 김밥, 잡채, 파전 등)를 비롯해 한국 드라마 혹은 영화에 대한 감상회를 갖기도 하고, 한국어로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기도 한다.

또한 영사관이나 한인회, 한국기업, 한국대학 등이 주최하는 K-POP 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백일장 대회 등 많은 한국어 행사들은 학생들이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한국 대학 교환 프로그램 및 대학원 진학의 특전을 부여하고,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스펙으로 작용기도 한다.

2013년 9월에 설립된 세종학당은 한국인과 재외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곳 중국인들에게 꽤나 인기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이다.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은 현지 중국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주말한글학교로 역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곳 한글학교는 모국어 습득 외에도 정체성을 찾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평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갖는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단지 즐거움만을 주는 곳이 아닌 한국어를 습득하면서도 '민족문화를 이해,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 세계 속에 존경받는 한국인 구현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이다. 한글학교에서는 한국인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동요대회를 열기도 하고, 문집 발간 등을 통해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기도 하지만, 바자회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방문 등을 통해 현지인들과의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학교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역점사업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유적지 탐방과 역사 수업이다. 이곳 동북삼성에는 고구려 유적지 및 독립운동 열사들이 활동했던 곳을 찾아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유적지가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업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역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에서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면서 “선생님을 통해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요.”라는 말을 하면 말할 수 없는 희열과 책임감이 느껴지며 보람을 느끼곤 한다. 또한 한글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한국 혹은 중국의 대학에 가서 “한글학교를 다녀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대학생이 되었어요.”라고 말을 들을 때 역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진다.

한때 우리의 조상들이 대벌판을 호령하며 기개를 펼치던 이곳 만주, 지금은 비록 우리 땅이 아니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이곳에 진출한 재외동포들이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이 만개할 날도 머지않았다. ☐☐☐☐☐☐☐☐



한국음식(김밥) 만들기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총회 및 창립 4주년 기념 포럼 성황리에 마쳐...

3월 30일(월), 오후 3시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본회 총회 및 창립 4주년 기념 포럼이 성황리에 치러졌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 선출이 있었으며, 곧이어 이어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조남철 전 방통대 총장이 3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회원들에게 취임인사를 하였다.



### ■딘스라켄 시 & 로벡 광산과 아리랑파크 조성을 위한 MOU 체결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특별기구인 '아리랑파크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성구)는 4월 28일 오후 5시(현지시간) 딘스라켄 시청에서 미카엘 하이딩거 딘스라켄 시장, 유르겐 크로커 로벡 광산 사장이 참가한 가운데 아리랑 파크 조성에 따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될 지역은 딘스라켄 시가 폐광이 된 로벡 광산 부지를 재개발해 대규모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곳이다.



이곳에 운동본부는 아리랑파크를 조성하고 기념관에 파독근로자관, 한민족 역사관, 한독우호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 ■ '딘스라켄아리랑파크' 사업 설명회 개최

#### - 재독동포대상

5월 25일, 오후 2시(현지시간), 딘스라켄 레디젠하임 강당에서 '아리랑파크 설명회 및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회는 설명회를 통해 오고 간 교민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아리랑파크(한독우호공원)' 설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 재정위원 및 관계자 대상

6월 4일(목), 오후 5시 The K 호텔 비파홀에서 박관용 아리랑파크건설위원장, ICKC 재정위원 및 관계자 40여 명을 모시고 딘스라켄 아리랑파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저력을 우리 후세와 세계인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보자는 취지에 참가자 모두 뜨거운 박수로 답하였다.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박갑수 고문, 세종문화상 학술상 수상

5월 14일(금),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실시된 세종문화상 학술상 부문에 본회 박갑수 고문이 수상하였다. 세종문화상은 1982년,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계승하고 문화 창달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로 34회가 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 ■5월 문화탐방

5월 24일(화), 5월 문화탐방으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추상표현주의의 대가, '마크로스코'의 그림전을 관람하고, 회원 간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딘스라켄 아리랑 어울사랑 공연



딘스라켄 아리랑파크 조성을 위한  
재독동포 및 딘스라켄 시민과 함께 하는 한독 문화 어울림 마당!

일시\_ 2015년 7월 13일(월), 오후 6시

장소\_ 독일 딘스라켄 Ledigenheim  
Stollenstrasse 1 46537 Dinslaken



주최\_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주관\_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    협찬\_ 딘스라켄 시



###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신한은행 100-029-91098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아리랑파크'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